구원받음 확인법

(막16:15-20)

1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9.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구원받음 확인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으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것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 구원 받은 자들에게 바로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얘기지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바로 구원 받음의 싸인이라는 얘깁니다,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주 만나게 되는 오해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도폭발 할 때 그렇게 물어봅니다, '오늘이라도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천국 갈 것은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마음에 확신하는 게 확신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확인의 대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지.
그러면 구원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주어지게 되면, 그 구원이 주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지, 징조가 나타나고 조짐이 보이는 것이지, 구원은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밤 죽어서 천국 갈 것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가 잘못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부활과 승천까지 이어지는 모든 사건이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믿음의 포인트는 어디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비록 십자가에 달리진 않았지만,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이 뭐냐 하면 오늘 19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렇게 믿게 되면 십자가 위에서의 연합은 끝까지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에 묻히실 때도 나 자신이 연합해서 묻히는 거고, 부활하실 때도 내가 부활하는 거고, 승천하실 때도 내가 승천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상태도 내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에베소서 2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늘에 앉힌바

되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앉힌바 된 것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힌바 된 겁니다.

그 ‘내가’라는 게 뭐에요.

몸은 내가 아닙니다, 인격이 나에요, 인격이.

인격이 뭡니까?

마음에 ‘나’라는 자아의식이 있는 게 인격입니다.

자아의식이 있는 게 나에요.

그 내가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겁니,. 하나님 우편에.

이게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앉아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님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편에 앉아계신 주님과 예수님 좌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끼어 있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제일 친하게 가까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있을 때에, 구원 받은 상태라는 건 뭘 말 하냐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제일 친한 상태, 이게 바로 구원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촌수를 따질 때, 배우자는 무촌이라 그래요, 자식과 부모 지간은 일촌이라 그러고…

그런데 배우자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더 가까이 있는 것, 이게 구원의 상태입니다.

배우자와 사이가 좀 멀어졌어요, 이혼 했어요, 그래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더 내 마음에서 가까이 계시고, 먼저 계시고 그래서 더 소중한 상태, 이게 바로 구원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평생 30년 40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일생의 노력과 피땀이 어린 그런 사업체입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상태는 그 사업장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더 가까이 친하게 있는 상태가 구원 받은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내 육체보다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상태가 바로, 그게 바로 구원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제일 친하고 제일 소중한 상태, 이 상태가 구원 받은 상태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우린 이렇게 믿음생활을 합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마음을 침범한 상태에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한 상태.
다시 말해서 지금 마음은 가정이 더 가까이 친하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건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자식의 문제가 덜커덩하고 마음에 와 닿습니다,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사업 문제가 마음에 덜컹 와 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사업을 잘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사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애인이 있고 결혼문제가 있다 할 때, 그 결혼문제보다 취직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사업장에 나가고 자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되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상태가 뭐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은 상태는,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있는 상태이고, 주님과 하나님이 제일 친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먼저 만나야 될 대상이고, 제일 친한 대상이고, 제일 소중한 대상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장로님이고 심지어는 목사님이면서, 목사님으로서 교회 건축이 더 문제고, 아무개 장로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문제이고, 항~상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 먼저 마음에 와 닿고, 그 마음에 와 닿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다, 구원 못 받은 목사님입니다.
구원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제일 가까운 상태 제일 친한 상태,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친한 분이 될 때, 내 몸보다도 더 친한 존재로서 내 앞에 계실 때에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이 쫓겨납니다, 또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귀신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알아야 쫓아내지요.
귀신이 자리 잡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제일 친해야 되는데, 근데 귀신은 어떡하던지 하나님보다도 더 내게 친한 어떤 것들을 들이밀려고 노력하는 자가 귀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하는 일이 급하다, 사업이 위기에 빠졌다 그러면, 그게 사업이 위기에 빠진 게 아니에요.
풍랑 만난 배 위에서 그 배가 위기에 빠진 게 아닌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과 제일 친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은 사업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귀신이 뭐냐 하면 '속이는 자', 마귀 귀신이 뭐 하는 자냐? 속이는 자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뭘 속입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갈증이 납니다, 요게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제일 가까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고 하나님의 기운을 쐐야 갈증이 없어지는 데,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네가 지금 마음의 갈증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자식을 보면서 자식문제가 시급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식문제가 시급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시급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운을 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제일 시급한 일인데, 자식문제가 시급한 거라고 해서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친한 위치에 갖다 놓는 게 귀신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제일 내 마음이 제일 친한 상태에 있을 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이웃을 만날 때는 그 이웃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멀리 있고, 그 하나님과 이 사람 마음 사이에 어떤 것들이 끼어있는지를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소를 찔러서 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인을 상담할 때, 사업 때문에 막 난리가 나서 걱정이 돼 갖고 와서 '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 사업이 망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목사님이 당신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있는 구원 받은 목사님이라면, 이 교인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딱 봅니다.
사업이 망할 위기에 있지만 그건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망했다가도 잿더미 위에서도 다시 일으키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망하든 흥하든 그 사업문제가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교인에게는 사업이 급하게 보일 만큼 귀신이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이라는 놈들이 사업이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위장을 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내가 구원 받은 목사님이라면, 귀신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 구원 받은 자,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서 자식보다 아내보다 애인보다 취직문제 결혼문제보다 돈 문제보다 내 육체보다도 더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신 구원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싸인이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면, '랄랄랄랄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는 방언만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새 방언이라고 말할 때 헬라어의 뜻이 뭐냐 하면 혀, 영어로 Tongue(텅) 그리고 Language,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단어의 뜻이.
그러므로 이 방언이라는 것은, '랄랄랄랄라' 하는 그 방언도 속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방언도 받으세요!
그러나 더 엄격하게 말하면 새 방언이라는 것은 새 혀, 새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새 언어.
새 언어라고 말하면 우린 또 착각을 합니다.
오순절 사도들이 각 지방 사람들의 말,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과 뭐 독일 사람과 프랑스 사람과 중국 사람이 모였다 그러면,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듣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듣고 영국 사람은 영어로 듣고 하는 거, 그 방언이었어요, 오순절 방언은.

그런데 더 큰 의미로는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가는 무엇부터 기록을 하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말을 합니다.
새 방언, 새 언어라는 말은 새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새 교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단어를 쓰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새 교훈입니까?
새 언어입니다 이게, 새 교훈이 새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있을 때, 돈이 제일 가까이 있을 때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어입니다.
생각이라는 게 언어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고한다' 이게 언어로 생각해요.
언어의 질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의 체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 언어가.

새 방언이라는 얘기는, 단어는 그 단어인데,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인데 그 단어들이 형성되어지고 짜여 지는 언어의 세계가 다른 세계가 돼 버렸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동안 좋던 것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변화가 뭡니까?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언어가.
생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생각을 언어로 하니까.
그 동안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학벌이 좋았습니다, 가문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계층에 속한 신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것들,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중심으로 언어는 움직이게 돼있어요.

예를 들어, 자식이 마음에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자식이 마음에서 가까이 있는, 자식이 제일 친한 존재인 그런 어머니의 생각은 제일 친한 존재인 자식을 중심으로 생각이 돌아가게 됩니다.
돈이 마음에서 제일 친한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인생관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라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어머니는, 자식이 잘~양육되는 꿈을 갖게 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꿈을 갖게 되고, 인기를 좋아하는 탤런트들은 대상을 받는 꿈을 꾸게 됩니다.
제일 친한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친한 것들 제일 좋다고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제일 친해지면서, 완전히 언어의 세계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 할 줄 안다' 이런 언어는 세상에 없어요.
비천하면 떠나야 될 대상이고 혐오해야 될 대상이고 떠나야 될 대상이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가르치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알기만을 소원할 뿐이지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게 돼요, 새 언어를 말하게 돼요.
새로운 혀를 갖게 된다는 얘깁니다.

두 번째,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뱀.
이제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있는 자가 귀신을 몰아냅니다, 나 자신에게서부터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건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뱀이 뭡니까?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네가 선악을 판단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뱀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제일 친한 자는 언제나 사람을 만나건 사건을 만나건 그 구원 받음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듣습니다.
내 판단을 얘기하고 내 판단으로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 사건보다 만나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보시고 그 사람을 보신 뒤에,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 주실 때 그 생각을 받아서 살지, 내가 판단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이게 뱀을 집어 올린다는 얘기에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다가 왔을 때 뱀에게 끌려갑니다.
근데 뱀을 장악하고 지배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이 '독을 마실지라도' 독을 마셨는데 무해했다는 그런 얘기는 지금 이 복음서 성경전체에 없어요.
단지 바울이 멜리데 섬에 난파당했을 때에 뱀에게 물렸을 때에 무해한 것이 있지마는, 이 이야기가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독이 뭡니까? 독이. 독!
하나님 말고 마음에 좋게 여겨지는 것들이 다 독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 좋게 여겨지는 것들을 흡수해 버리고 그것을 마셔버리고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다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을 쫓아간다는 건 돈에 중독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과 먼저 친하고 더 가깝기 전에 자식을 붙잡게 될 경우에 자식사랑이 아니라 자식중독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여간 하나님 말고 마음이 좋다고 여겨서 그것을 갖고 싶어 하거나, 가져서 그것에 취하는 것, 다~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제일 먼저 친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똘똘 뭉쳐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상태에서, 돈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래도 돈에 취하지 않습니다.
돈 따로 놀고 내 마음 따로 노는 거예요.
돈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마음에서 돈이 있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사고 다 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돈 따로 노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처럼 마음은 따로 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마음이 붙어있는 가운데에 지시하는 대로 돈을 쓸 뿐이지, 돈 따로 마음 따로 노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는 자라는 의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름답게 생겼어도 내 육체의 내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다~ 이게 독입니다.
내가 아름답게 생겼다는 사실을 내 마음이 깨닫고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중독되는 거예요, 자식이 좋으면서 중독되는 거예요, 인기가 좋으면서 중독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으면서 중독되는 거예요, 건강에 중독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은 마음이 세상에서 좋다는 모~든 것들과 다 따로 놉니다.
독이 뭐라고요? 세상이 정해놓은 좋다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마음이 흡수해 버리면 중독에 걸려 빠져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병이라는 건, 질병이 마찬가지로 병입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내 삶의 질병.
다시 말해서 질서의 깨어짐, 장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친한 상대로 모셔드리게 됨을 통하여 이 구원 받은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에 모~든 것이 질서를 잡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이 질서 잡혀가면서 일어나야 될 일과 안 일어나야 될 일과, 나갈 때와 들어갈

때와 베풀 때와 거두어들일 때와 칭찬할 때와 꾸짖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온전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 나갈 때에, 그 질서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질서의 힘이 닿는 곳마다 질서가 생성되어져 갈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징표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가까운 분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제일 친한 상태가 될 때에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 받았음이 확인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내 육체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 구원의 상태가 오늘 하루 종일 유지되고, 그 구원의 상태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증거들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확인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